No.1. Asian Capitalist 류종현, OmahaRyu를 넘어선 Alpha Ryu와 자본의 기하적 장기증가를 함께할 마지막 기회의 제안.

(주)알파류인사이트4.0 투자설명회

류종현 대표이사 드림

일정 : 4월 16일 2시~4시
장소 :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 2층 사파이어 회의실

[버크셔해서웨이를 넘어서서, ㈜알파류인사이트4.0]

[가치투자 4.0버전의 글로벌 허브, 싱귤래리티 투자자]

■ 가치투자 4.0 버전

- 가치투자 1.0 벤저민 그레이엄 : 가치보다 매우 싼 2~3류 기업
- 가치투자 2.0 워런 버핏 : 적정 가치의 현 성숙/성장기 1류 기업
- 가치투자 3.0 아크, 제벤베르겐, 소프트뱅크 등 : 미래성장을 기대하는 기술혁신 잠재 1류 기업
- 가치투자 4.0 알파류(류종현)인사이트4.0 : 미래 수익산업을 실제로 지배할 1류 혁신기업들을 비싸지 않게 투자
(미래의 현실을 정확히 통찰하고 공개하지 않는다)

■ 아시안(미래의 글로벌) 스마트 투자자본의 HUB, 싱귤래리티 투자자

- 류종현의 가치투자 4.0 운용 통찰력/체계는 최고의 자본투자허브
- 단순하고 탁월한 주주경험인 주주총회와 온라인 간담회 연 1회
- 다양한 선도산업/글로벌 성장지역/글로벌 인구,문화,라이프 트렌드를 하나의 포트폴리오에 통합

※ 인간의 지성 한계까지 접근하기 위해, 사랑하는 모든 것들, 업무, 일상과 건강, 휴가 등 연단위 라이프사이클을 통합 및 단순화할 것임.

[싱귤래리티 Wisdom of Alpha Ryu]

■ Better than 버핏, <알파류>

- 기존 2차, 3차 산업들을 독파하여 1950~1990년까지 누적적으로 투자에 성공했지만, 3.5차 산업인 인터넷과 반도체 산업과 무형의 4차 산업들에 집중하지 못한 버핏은,
  시대적인 천재조차도 태어난 시기의 배경지식들이 모두 허물어지는 시대전환에 적응해야만 한다는 것을 알려줌. (2000년 이후 장기연평균실적이 이전의 절반)

- 21세기 성장가치투자자 류종현은
1. 세상의 핵심 변화/진화/혁신 방향을 알고,
2. 각 해당 분야의 주요 지식을 계속 업데이트하며, 전체적인 그림을 머릿속에 유지하고
3. 여러 분야들 간의 치열한 상호영향과 종합적인 관점을 통해, 분야들 간에 <상대적 중요성>과 <상대적 장기존속성> 등을 끊임없이 통찰함.

[싱귤래리티 Wisdom of Alpha Ryu]

■ Better than Anyone, <알파류>

- 나는 중국의 국가정체성 리스크를 어느 정도 예측함, 베트남도 마찬가지.
  그 대신 아시아에서는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인도도 예정)를 투자.
  물론 미국로컬투자자보다 밝은 글로벌/지역국가별 통찰력으로 미국의 글로벌 첨단성장기업에 가장 적극 투자.

- 아크는 <중국의 체제, 과제, 중국인의 자유억압>과 <글로벌 통합시장>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버핏 회장은 <미래 기술, 산업 및 서비스>와 <글로벌 통합시장>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손정의 회장은 <인간의 심리(무의식적 선택, 허영, 선호브랜드)>와 <신정보산업의 역학관계(선도기업 독과점 기하급수적 강화)>를 최우선하지 못하여 실적이 들쑥날쑥함.

[버크셔해서웨이를 넘어서서, ㈜알파류인사이트4.0]

■ HOW Alpha Ryu(류종현) better?

- 아크 인베스트, 소프트뱅크, 내스퍼스, 제벤베르겐 캐피털, 베일리기포드 등 다양한 가치투자 3.0 버전 투자법인보다 류종현이 낫다.

- 지난 2년간 검토 결과 중기적 관점은 물론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술이나 산업적 관점은 물론이고, 글로벌 전체적 관점에서도(미국 개별로는, 또한 중국 개별로는 글로벌의 일부일 뿐)
  위 투자법인 포트폴리오 내역 및 그 편입 배경의 아이디어와 통찰력보다, 나의 두 법인(오마하류 투자그룹)의 포트폴리오 내역 및 그 편입 배경의 아이디어와 통찰력이 더 우월하다.

- 단순한 수익률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술 뒤의 실제 미래산업들과 산업 내 주력기업들의 역학관계로 누가 밀리고 누가 밀어낼 것인가, 또한 그 뒤에 있는 최종수요자들은 인간들, 즉 선진국과 중진국, 개발도상국 등의 십수 년 시간 차이는 있지만, 다양하면서도 광범위한 공통 방향으로 흐르는 인간욕구와 니즈의 장기트렌드 및 그것이 유발할 제품과 서비스의 미래 흐름 등을 고려하는 점에서 더 우월하다.

- 다시 말해서, 장차 21세기 사고의 왕으로서 각 산업과 기술 별로 주요 승자들을 가장 통찰력있게 미리 판단할 수 있다.

[부연설명, 류종현 & 미래확장 알파류 팀]

■ 복합성장가치 통찰투자자 류종현(가치투자 4.0) 스타일

- 복합투자스타일 : 워런 버핏 + 캐쉬 우드 + 존 템플턴 = 류종현
- 해설 : 버핏(경제적 해자, 경쟁우위)+우드(기술선도, 성장성)+템플턴(객관적 글로벌 비교, 상대적 성장가치) = 류종현

■ Where is Jonghyeon Ryu standing upon?

- 류종현 대표이사는 항상 현재와 미래, 선진국과 대다수인구를 차지하는 개발도상국 등 두 가지 연결영역의 중간을 넘나들어야 한다.
- 기존 성장 빅트렌드(산업과 기업, 서비스 등)와 내재된 인간의 욕구를 전제로, 항상 새로운 기술과 산업의 현실적 성장/독과점/수익 가능성을 통찰력 있게 판단해야 함.
- 선진국의 산업, 기술, 서비스 트렌드와 그것이 거대 인구의 개발도상국에 스며드는 방향과 속도를 동시에 고려해야 함.

■ 21세기의 20%가 지난 지금, 두 가지의 싱귤래리티가 진행 중

- 모바일 인터넷, 빅데이터, A.I.는 싱귤래리티 진행 중(거의 40억이 연결, 행성 스케일)
- 류종현 대표이사의(현재 만 43세) 통찰력은 글로벌인베스트먼트 주요 플레이어들과 비교할 수 있고 일부 측면에서 추월할 정도로 싱귤래리티가 진행 중이지만, 아직 조금밖에 안 왔으며 향후 60년간 류대표 통찰력의 기하급수적 증가분에 비교하면 현재의 싱귤래리티 과정도 아주 작은 수준의 변화에 불가함.

스타벅스, 에스티 로더 스토리*(잡지 못한 기회)*

스타벅스 창업주 하워드 슐츠가 처음 이탈리아식 커피전문점을 창업했을 때, 242명에게 투자를 권유했지만 217명이 <노>라고 답했다.
당연한 얘기지만 이 때 <노>라고 하지 않은 25명은 모두 큰 돈을 벌었다.
글로벌 명품재벌 에스티 로더 역시 한 미용실에서 크림 형태의 화장품을 팔면서 신화는 시작되었고, 그녀는 인생이 세일즈라는 명언을 남겼다.

워렌버핏, 류종현*(아시안 No.1. 캐피털리스트)* 스토리

워렌버핏에게 처음 투자조합의 자금을 맡긴 오마하 시(네브라스카 주)의 초기투자자 7명과, 버크셔해서웨이 주주총회에 참석한 초기 12명의 주주들은 모두 천만장자 이상이 되었지만, 미국 전역의 시민은 물론 오마하 시민들조차도 그 기회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것은 나도 마찬가지! 현재 지속적으로 성공을 시작한 초기 단계에서, 향후 수십 년간 기대수익이 수백 배 임을 스스로 알리지 않으면 누가 알 것인가?

13년 개인수익률 연평균 25% 이후, (주)오마하류글로벌스노볼리서치를 40명 주주(8년간 지켜봐온 투자자들)와 공동설립했으며, 첫해인 2020년(만 1년)22% 공식 수익률을 기록했고, 2021년 12월 31일 종가 기준(만 2년) 추가 23% 수익률을 기록 중이다.
(2021년 아크인베스트 -24%, 미국 헤지펀드 평균 6%)
이는 향후 10년마다 6배, 30년 간 300배 가까운 수익률이 누적될 신화의 시작이다.

저는 지금 여기서 마지막<나>와 <알파류인사이트4.0>를 세일즈합니다.
- 선택은 당신의(귀사의) 몫입니다! -

[버크셔해서웨이를 넘어서서, ㈜알파류인사이트4.0]

늦게라도 알았을 때가 사실은 가장 빠를 때.
이제 2022년 상반기라도 귀하(귀사)께서 참여할 수 있는 방법

- (주)알파류인사이트4.0(가칭) 설립 : 서서히 오마하 명칭 너머로!

※ 이번 4월 30일 주주청약 신청 및 계약일이(현장 방문) 마지막 행사로 본 법인에 사후적인 추가출자, 유상증자 불가.

1인당 최소 투자금액은 1억 원이며, 1천만원 단위로 증액 가능,
1억 원~100억 원 내에서 금액 제한 없음,
(예를 들면, 1억 1천만, 6억4천만, 15억3천만 등 액면가로 주주될 기회)

단, 투자조합 전체 밸런스이슈로 150억 이상 집단은(법인, 자산가 단체) 일정을 동일하나 청약당일에 별도 법인설립, 법인명은 (주)알파류인사이트밸류4.0, (주)알파류위즈덤밸류4.0 등

※ 운용수익률과(10년 약 6배 전후, 20년 30~40배 추정) 별도로,
향후 피인수합병 혹은 상장시 해당 시점에 일시적으로 약 2.8배(시장가치) 추가수익.

[버크셔해서웨이를 넘어서서, ㈜알파류인사이트4.0]

- 최소 1억 이상(천만원 단위 증액) (주)알파류인사이트4.0 예비주주들은 4월 30일에 주주청약행사(현장 방문)

- 마찬가지로, 150억~200억 단위 집단도 4월 30일에 별도 투자조합법인에 주주청약(주주약정서, 정관 등 모두 동일, 법인만 분리) (그 이하 금액은 상기 기본 법인에 다른 주주들과 함께 최대주주로 참여)

※ 합산 기준 150억~200억 법인 단위로,
1. 개별 50억 이상 소수집단 동반 출자자들(회장, 법인장, 고액자산가)의 경우 별도 투자법인 (4월 16일 설명회 참석, 이후 필요시 사전 문의 후 4월 30일 당일에 별도 법인으로 주식청약 진행, 필히 동반출자자들 함께 방문)

2. 단일 주주가(한 명, 한 기업) 150억~200억 출자할 경우 단독 법인진행, 마찬가지로 4월 16일 참석, 이후 4월 30일 주주청약서

※ 운용수익률과(10년 약 6배 전후, 20년 30~40배 추정) 별도로,
향후 피인수합병 혹은 상장시 해당 시점에 일시적으로 약 2.8배(시장가치) 추가수익.

[버크셔해서웨이를 넘어서서, ㈜알파류인사이트4.0]

- 1호 법인과 2호 법인의 경우와 달리 1억 이상 자본금 상향 이유는,
1) 1호 및 2호 법인의 성공 레퍼런스, 2) 아래 회수기간에 대한 옵션 추가.

※ 회수기간 옵션(만 10년차에 발생하는 1회성 이벤트)

- 1. 설립 후 만 10년까지 자체 상장(1호, 2호, 3호 법인통합 및 작은 상장사 매입 통해 우회상장) 후 상장주식을 주주별로 현금화

- 2. 설립 후 만 10년까지 글로벌 대자본의 지분투자를 통한 상장(글로벌 대자본의 투자법인 설정 후 1,2,3호 법인 합병을 통한 상장)

- 3. 설립 후 만 10년까지 1번과 2번옵션이 불발할 시, 주주총회에서 <상장시까지 조금더 남을 주주>를 제외한 <당장 전액 청산할 주주>의 지분율이 50%를 초과하면 법인 자체를 청산하고, <당장 전액 청산할 주주(부분청산은 불가)>의 지분율이 50%이하이면 자사주 등으로 매입함.
(10년이면 자본 6~7배, 상장시 peg비율 0.7 적용 15~18배 자산가치)

※ 투자설명회 당일 주주약정서에 기재.

Who is 류종현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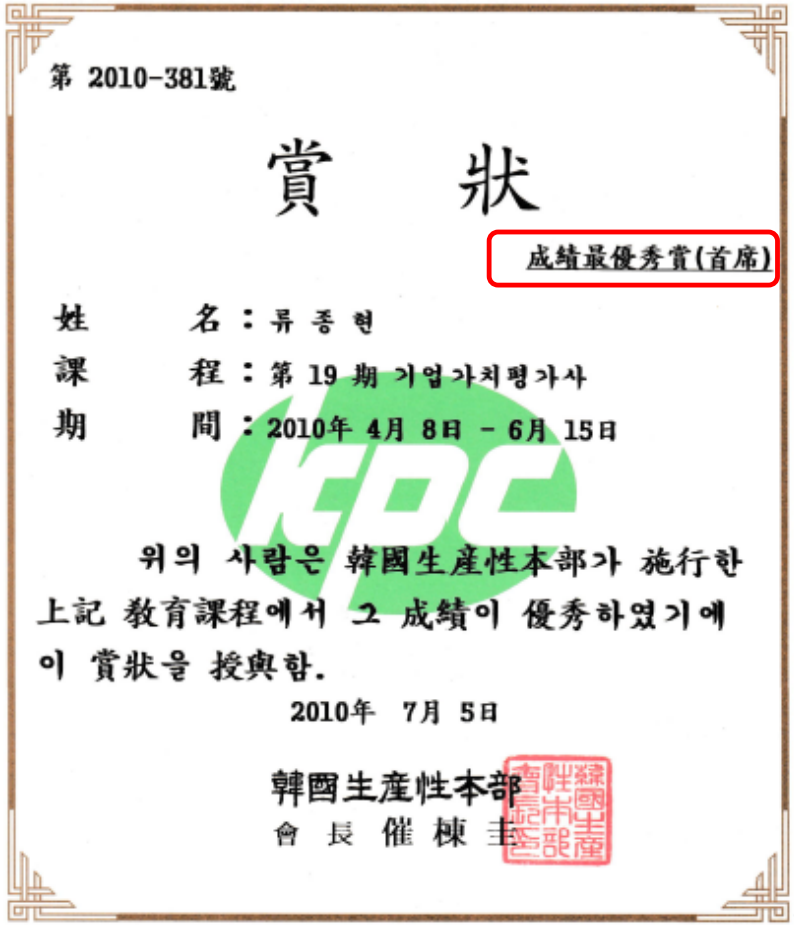
[經歷]
2022년 4월(계획)~ (주)알파류인사이트4.0 설립 + 기존 (주)오마하류스노볼 + 기존 (주)오마하류글로벌 + 기존 (주)한국주식가치평가원 통합 대표이사.
향후 수 년간 오마하류(with 알파류) 투자그룹 주주이익 극대화를 위해 운용사 인수, 글로벌 대형 자본 피투자(일시에 시장밸류 2.8배 이상 업)를 통한 상장 혹은 자체 우회상장을 통해
Excelling Berkshire, [AlphaRyu INSIGHT4.0] Rises !

2021년 3월~현재 (주)오마하류스노볼밸류 대표이사
2019년 12월~현재 (주)오마하류글로벌스노볼리서치 대표이사
2011년~현재 (주)한국주식가치평가원(KISVE) 대표이사,
2010년~현재 수석 기업가치평가사 (2010년 전문자격 취득. 역대 최고점수로 수석 - CAPM 이론의 오류 개선), 수석 M&A 매니저(해당 기수 수석, 밸류에이션 전문), 경영 컨설턴트 자격 등

2017년~2019년 전국대학생투자동아리연합회 초대 고문(주식가치평가)
2012년~2019년 가치투자자협회 부회장,
2011년~2015년. 주식가치평가사 민간자격증 설립 및 발급자(2011~2015) : 가치평가 이론/시험 출제/자격증 발급.
(주)한국투자교육연구소 초대 연구과장(애널리스트, 강의),
서울시정개발연구원 R&BD센터 투자평가매니저(금융투자, 바이오, IT 등)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졸업(19학번)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동양사학과 졸업(97학번), 투자론 등 경영학과 전공 수강.
대구 최고 명문 경신고(서울대 30명 진학/연간) 설립역사상 교내 수학경시대회 최초 만점(94년도)

[著述, 放送]
전국대학생투자동아리연합회 'Stock Master' 특임교수, 투자자교육협의회 주식가치평가 초빙강사

Founder 류종현 대표이사 *(Asian No.1. 학습기계 투자통찰가)*



第 2010-381號

賞 狀

成績最優秀賞(首席)

姓 名 : 류 종 현

課 程 : 第 19 期 기업가치평가사

期 間 : 2010年 4月 8日 - 6月 15日

위의 사람은 韓國生産性本部가 施行한 上記 教育課程에서 그 成績이 優秀하였기에 이 賞狀을 授與함.

2010年 7月 5日

韓國生産性本部

會 長 催 棟 主

자 격 증 서

성 명 : 류종현

자 격 명 : 기업가치평가사

자격번호 : 2010612181013

발 행 일 : 20100705

교육기간 : 2010/04/08~2010/06/15

위 사람은 한국생산성본부가 시행한 상기 자격시험에 합격하였기에 이 증서를 교부합니다.

Certificate of Achievement

Name : Ryu Jong Hyeon

Course : Enterprise Value Analyst

No. of Certificate : 2010612181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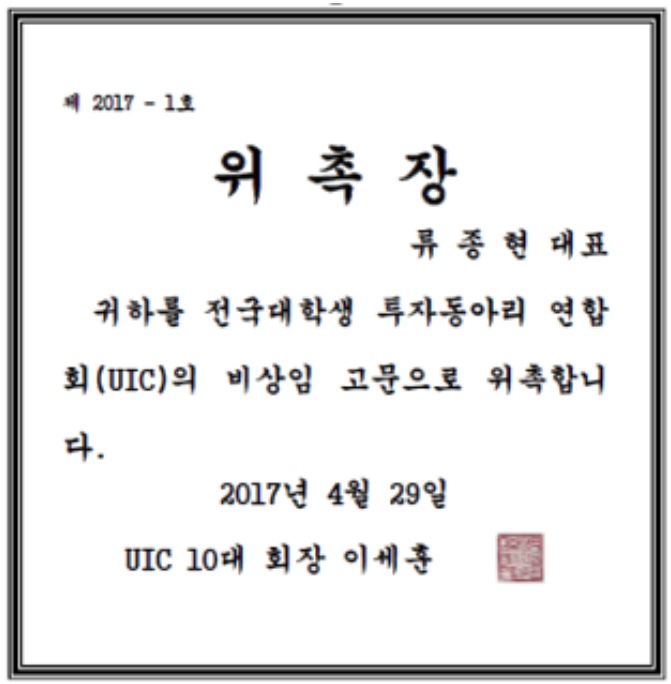
Issued Date : 5 Jul. 2010

Education Period : 8 Apr 2010 ~ 15 Jun 2010

This Certificate is awarded to those who have successfully completed the Above Course.

Chairman & CEO
Korea Productivity Center

한국생산성본부 회장



제 2017 - 1호

위 촉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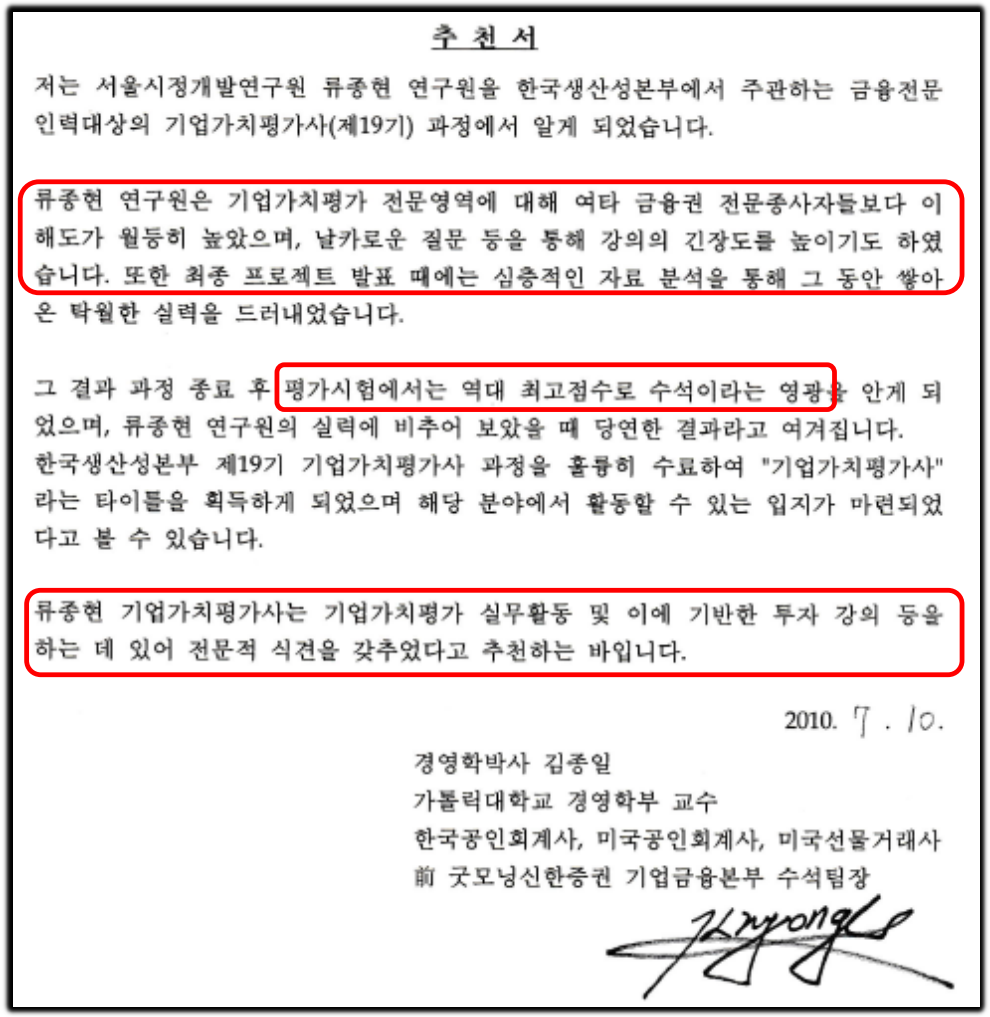
류 종 현 대표

귀하를 전국대학생 투자동아리 연합회(UIC)의 비상임 고문으로 위촉합니다.

2017년 4월 29일

UIC 10대 회장 이세훈

Founder 류종현 대표이사 *(Asian No.1. 학습기계 투자통찰가)*



추 천 서

저는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류종현 연구원을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주관하는 금융전문 인력대상의 기업가치평가사(제19기) 과정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류종현 연구원은 기업가치평가 전문영역에 대해 여타 금융권 전문종사자들보다 이해도가 월등히 높았으며, 날카로운 질문 등을 통해 강의의 긴장도를 높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최종 프로젝트 발표 때에는 심층적인 자료 분석을 통해 그 동안 쌓아온 탁월한 실력을 드러내었습니다.

그 결과 과정 종료 후 평가시험에서는 역대 최고점수로 수석이라는 영광을 안게 되었으며, 류종현 연구원의 실력에 비추어 보았을 때 당연한 결과라고 여겨집니다. 한국생산성본부 제19기 기업가치평가사 과정을 훌륭히 수료하여 "기업가치평가사"라는 타이틀을 획득하게 되었으며 해당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입지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류종현 기업가치평가사는 기업가치평가 실무활동 및 이에 기반한 투자 강의 등을 하는 데 있어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다고 추천하는 바입니다.

2010. 7.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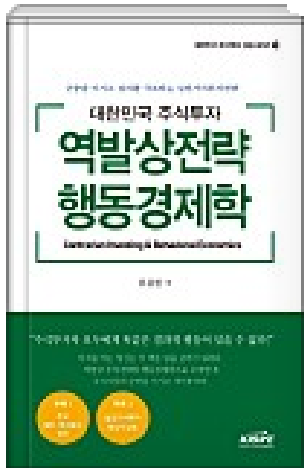
경영학박사 김종일
가톨릭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한국공인회계사, 미국공인회계사, 미국선물거래사
前 굿모닝신한증권 기업금융본부 수석팀장

김종일 교수 주요 외부직책(현)

-산업통상자원부 KPC 기업가치평가사 주임교수
-한국상장사협의회 위원
-(사)한국M&A컨설팅협회 수석자문위원
-(사)한국기업평가원 수석자문위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위원
-한국전력공사 매각심사위원회 위원
-한국공인회계사 시험 출제위원

Founder 류종현 대표이사 *(Asian No.1. 학습기계 투자통찰가)*

류대표 저술 - 실전가치투자를 위한 기본체계, 지식, 전략서



[코리안 버크셔해서웨이, ㈜알파류인사이트4.0]

- 집합적인 액티브펀드의 장기 평균세후수익률보다 인덱스 장기수익률이(3% 대) 더 높다. (펀드마다 실적은 순환하며, 매해 70~80% 펀드가 인덱스펀드보다 실적이 나쁘다)

그 이유는

1) 집단적 의사결정, 2) 대표 혹은 간판 포트폴리오 참조/복제

3) 무난한 평균을 위험한 도전보다 선호, 4) 비합리적인 수준의 분산.

※ 그러므로 인덱스펀드에서 차감되는 수수료를 감안하면, 종합주가지수 상승률 자체를 장기적으로 더 앞선다는 것은 생각보다 대단한 성과.

헤지펀드 : 수익무관 연초 기본수수료 2%+모든 수익률에 대한 성과수수료 20% 액티브 공모펀드 : 매년 차감수수료 2.5% 이상(이 이하 수수료는 병아리/열등 펀드매니저 액티브 공모펀드와 헤지펀드 대부분이, 10년 수익률로 주식시장 하회하는 것이 진실!

- 한편, 워렌버핏도 추천한 전설적인 가치투자 펀드매니저 빌 루안 : ***30년간 연평균 15.5%의 수익률을 기록하여 투자자들을 부자로 만듦***

<하지만 그런 그조차도>

펀드설립 이래 4년간 누적수익률이 종합주가지수보다 성과가 저조했으며, 7년 차에 누적수익률이 지수를 능가했다. ***그리고, 십수 년이 지나면서 점차 전설이 되었음.***

누적수익률 기준으로 필립피셔는 4년차부터, 랄프웬저는 7년차부터 주식시장을 이김.

[코리안 버크셔해서웨이, ㈜알파류인사이트4.0]

- 알려지지 않은 애송이 버핏 조합 최초주주는 7명. (주유소 사업 실패. 버핏 100달러 투자)
 ※ 1차 조합 주주 7명의(가족+친구) 경우 4% 초과수익의 1/2이 수수료

- 버핏 2차~7차 조합(지역자산가 및 전국 고액투자자들)
 ※ 벤치마크 6%기준 초과수익의 1/3, 4%기준 초과수익의 1/4, 벤치마크 없이 모든 수익의 1/6 수수료 중 택1.
 . 1950년대 젊은 미국 경제성장률이(종합주가지수 증가율) 성과수임의 기준 벤치마크.

- 향후 한국 장기 잠재성장률은 2019~2025년 1.5%, 2026~2035년 1.0% (KDI, 비교적 우호)
 2020년대(상동 기간) 평균 1.2%, 2030년대(상동 기간) 평균 –0.4% (한국노동연구원)
 . 모두 2018 말~2019 초 전망. 신종코로나 이후 OECD전망 장기잠재성장률 1.2%(40년 이내 추가하락)

 그럼에도 불구 <류종현 조합>은 다소 높은 BM 적용 1.2+[2.8]=4.0%(버핏 조합보다 약 2.8% 초과, 버핏 동일기준시 現 대한민국 BM 1.2~1.5%)
<주주이익 극대화 정책 1 : 버핏보다 합리적인 기여보상, 정책 2 : 전무후무 워터마크 정책 >
 매년 기말기준 4.0% 수익률까지 성과수임 없고 초과분의 25%(이후 자본총계 1천억부터 초과분의 20%, 자본총계 5천억부터 15% 등으로 하향, 이하 주주약정서에 기재)

(2030년 이후 잠재성장률 0.4% 전후 찍더라도 그대로 유지하는 최고 선행투자기회)
※ 4%~10% 저조한 수익률 가정시 헤지펀드 수수료는 자그마치 2.8%~4%, 공모액티브펀드는 2.5%, 알파류인사이트 수수료는 0.0%~1.5%

[코리안 버크셔해서웨이, ㈜알파류인사이트4.0]

- 향후 초장기 글로벌 금융환경은(특히 선진국에 가까울수록) 혹독한 저성장기에 시달릴 것으로 추정됨. 워런버핏 버크셔해서웨이마저도 초기 수십년과 최근 십여년의 평균수익률은 너무나 차이가 날 정도. 미국 월가에서도 시장수익률을 이기기가 하늘의 별따기라고 자주 표현하고 있음.

- **2019년 12월에 설립한 (주)오마하류글로벌스노볼리서치 1차년도 수익률은 22%, 2차년도 수익률은 23%, 30년 장기성장의 서막이 열림.**
(2021년 아크인베스트 -24%, 미국 헤지펀드 평균 6%)
- 조심 & 보수적 & 높은 확률로(초장기평균 20%~23%) 추정하면 법인펀드 자체
장기누적배수는 약 10년 6~7배 전후, 20년 35~50, 30년 200~350배
(성과수임 차감 순자본총계 기준. 실제 자본의 시장가치 수익률은(PBR) 2~3배 기준 10년 14~18배, 20년 80~120배, 30년 400~800배,)

- **(주)알파류인사이트4.0 원칙은 대부분 4차산업혁명 선도 글로벌 스노우볼 + 장기성장 최선호개도국(동남아시아 등) 스노우볼 투자.** 일부자산 주식 헷지/역발상 투자.
※ 일체의 보유 및 매매 정보 비공개 (like 버핏조합, 모든 주주의 최고수익률을 위함)

- **투자목적 법인 설립 행위 자체가 시작부터 3배 수익 (초장기 ROE 20% 이상 법인의 적정 PBR은 2.8=Peg비율 0.7 이상). 비상장 기업도 마찬가지, 추후 우회상장/피인수 상장 등**
※ 10년 후 자본총계 6~7배, PBR 2.8 감안하면, 현재 10억 지분=10년 후 150~180억 가치.

[코리안 버크셔해서웨이, ㈜알파류인사이트4.0]

<글로벌 대표 투자자/투자기관들과 비교한 4가지 강점>

■ 주식가치평가 능력

■ 장기성장 2부문(신산업, 이머징) 및 비즈니스 통찰력 급증
- <대변혁기> 편견없는 젊음~실수적을 연륜 사이의, Balanced Age

■ 미국로컬 투자자보다 글로벌에 밝고, 이머징로컬 투자자보다 깊은 신산업 통찰력

■ 20년 최우선 동남아 중산층 이상 이해도(은퇴비자, 장기여행)

[류종현 대표의 <코리안 버크셔 해서웨이> 다중 구조 안전판]

※ 자기객관화로는 초장기 연평균수익률 20%~23% 중 최상단 추정, 싱귤래리티 접근에 따라 상단 수치 자체가 상승하고 있음.
※ 20년 후 자본총계 최소 35배 이상, 시장가치 최소 90배 이상 추정
※ 워런 버핏 60년 20%, 벤 그레이엄 20년 21%, 월터슐로스 30년 21%, 존템플턴 38년 15%.

1. 우상향 섹터 상호보완 스노우볼 선정 (인간욕구과 비즈니스 통찰력)

- 상호보완적 장기성장동력을 조합

: 우상향섹터① 글로벌선도 기술산업 + 우상향섹터②확실한 장기성장 개도국산업

- ①② 섹터 내에서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경제적해자/경쟁우위를 보유하고, 향후 15년 이상 연평균 19~25%, 혹은 그 이상 성장동력을 가진 기업에 투자함.

2. 확실한 비즈니스/수익 분석, 초고도 가치평가 (날카로운 분석&평가기술)

- 정성 분석 : 비즈니스의 경제적 해자/경쟁우위/시장점유율, 수익능력 분석(가장 중요)
- 정량 분석 : 주요 재무비율, 주요/특이 손익내용 장기 분석 및 추정
- 종목별 현재 가치평가 및 장기 연차별(플로우) 가치상승곡선 범위에 따라 운용

3. 주식시장 장기등락 역발상 (장기 시간 통찰력)

- 장기적인 매의 눈으로, 장기적인 주식시장평가(글로벌, 투자국가, 상대 및 절대평가)를 통한 주식 자산/기타 투자비중 조절

[코리안 버크셔해서웨이, ㈜알파류인사이트4.0]

글로벌 최고의 장기 / 펀더멘털 2대 성장 동력

정체 세계 중
장기성장 분야

선진산업(선진/개도국)
& 우량기업

성장지역 중
장기성장 국가

이머징 성장산업
& 우량기업

감사합니다

- 대표메일 customer@kisve.co.kr
- 연구팀 research@kisve.co.kr

※ 위 두 이메일 주소 모두 류종현 대표가 읽고 답장을 드립니다.
운용/분석법인 대표로서, 종목상담이나 투자타이밍 등 일체의 조언을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투자법인 신설 참여 등에 대해서만 질의받습니다.

※ 본 발표자료의 무단전재나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 공식 일정 >

■ 필수 참석 1 : 신규투자법인 설명회 (참석대상. 별도법인 포함 모든 예비 주주들)

- 4월 16일(토) 오후 2시~4시

-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돔형 3층 건물이며, 50층 타워 아닙니다) 2층 사파이어 회의실.

■ 필수 참석 2 : 신규법인 주주청약, 계약일(참석대상. 별도법인 포함 모든 예비주주)

- 4월 30일(토) 오후 1시~5시 중 편한 시간(백 명이 한 번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참석 시간순 차례로 다섯 명 이하 단위로 주주확정 서명 진행),

-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주주청약 장소는 4월 16일 당일 안내)
- 1인당 최소 투자금액은 1억 원이며, 1천만원 단위로 증액 가능
(예를 들면 1억, 3억1천만, 11억3천만 등. **설립후 추가출자 불가**)

<주주청약인수 행사(필수참석, 주주확정-인수/청약/약정서 날인)>

◎ 필수참석 일시 : **4월 30일(토)** 오후 **1시~5시** 중 자유롭게 아무 때나 방문 및 사인 후 퇴실

◎ 필수참석 장소 :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장소는 **4월 16일** 안내)

◎ 필수참석 준비물 : 주주는 신분증, 인감도장과 **3**개월 이내 인감증명서 **1**통

혹은 신분증, **3**개월 이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행사장에 손소독제 준비되어 있습니다.

***KF-AD, KF-80**, 덴탈마스크 이상을 착용하여 방문하시길 권장합니다 (면마스크 제외)*

◎ 대리인을 보내실 경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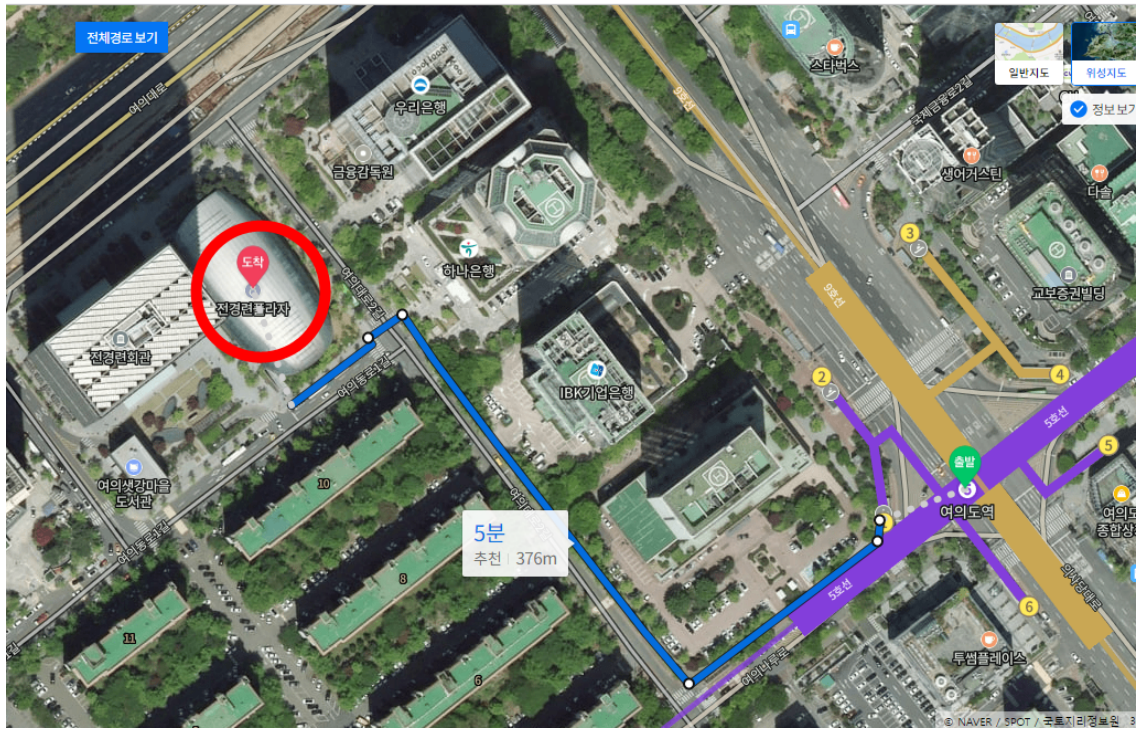
가능하면 반드시 본인께서 오셔서 빠르게 절차를 마무리하고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만에 하나 대리인께서 오실 경우에는 미리 평가원 메일(**omaharyu@kisve.co.kr**, **research@kisve.co.kr**)로 연락을 주셔서(평가원 실시간 확인),

①위 기본서류 ②대리인위임장 등을 대리인께서 지참하시면 됩니다.

- 4월 16일 설명회 주소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8-1 (컨퍼런스 센터 2층 사파이어 회의실, 돔형 건물)

- 여의도역 2번 출구를 나와서 150미터 거리에 하나금융투자 빌딩 / 금융감독원 빌딩의 뒤편에

전경련 컨퍼런스센터가 있습니다.(돔형 3층 건물입니다. 50층 타워 아닙니다)

위치문의는 02-3771-0114, 02-2055-4148.